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인문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지역 사회 봉사

주간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나
(빌립보서 1:21)

발행처: 대한예수교장로회 충청남도교회의 사서실 장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팩스 563-3932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김은호 편집국장: 조권근

기도하는 가을

주님의 뜻 이루어지는 모든 일 되도록

기관과 부서마다 1999년도 위해 준비

교회학교 각 부 가을전도

10월 25일에 가장 많은 전도 행사

청년2부는 서울역 노숙자들에게 전도



▲ 지난 가을에 있었던 청년1부 명동 전도집회.

봄 가을로 실시되는 교회학교 전도행사들이 지난 9월부터 시작되어 11월 초까지 계속된다. 초등부는 이미 지난 주일(9월 27일)에 초정전집회를 통해 50여명의 결신자들을 얻은 바 있고, 청년2부는 지난 9월 24일에 김밥과 대추와 등을 준비하여 서울역 노숙자 300여명에게 광장집회를 통해 복음을 전했다. 청년2부는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중앙병원과 서울역에서 환자들과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해오고 있다.

또한 10월 25일에는 유아부가 새친구초정전집회를, 영아부가 아바와 함께 하는 새친구초정행사를, 고등부가 1학년 총동원 전도를 실시하고자 준비하고 있으며, 중등부는 계속되는 학교 전도를 통해 전도운동을 벌이고 있다. 한편 대학부는 지난 달 시작된 캠퍼스 전도팀인 '아부와 목동' 및 대학별 익투스모임을 중심으로 전도 활동을 벌이고 있고, 청년1부는 11월 중 초정전도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 모든 전도 행사들이 실제적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구하고 복음을 드러내는 성령의 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전도하는 당사자들과 온 성도들은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해야 하겠다.

중등부 연합 예수 잔치

'98 시와 찬미의 밤

10월 31일에

중등부는 1, 2, 3부 연합으로 오는 10월 31일(토)에 '시와 찬미의 밤'을 실시한다.

금년 시와 찬미의 밤은 예년과는 달리 '가을의 끝을 잡고 깨신 주님'이라는 주제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찾아가는 데에 모든 행사의 초점을 맞추어 통합된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날로 학원폭력과 비행, 무신앙적 태도의 문제들이 심각해져가는 데에, 금년 행사를 통해 학생들이 예수님의 사랑과 은총을 다시 한번 깊이 체험하고 새 부흥의 불꽃을 일으킬 수 있도록 성도들의 기도의 지원이 요청된다. 한편 금년 '시와 찬미의 밤'은 중등1부에서 주관하여 실시하게 된다.

남성도 구역공과

10월부터는 '충현만나'에

10월부터는 남성도 구역공과가 '충현만나'에 실린다. 이는 남성도 구역모임이 금요일 오전에 진행되는 구역예배와 연계성 속에서 진행될 필요가 있고, 아내들과 남편들이 서로 무엇을 가지고 공부하는지를 알고서 서로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시작된 것이다. 한편 교구위원회에서는 금년 초 매우 활력있게 시작되었던 남성도 구역모임이 더욱 왕성해짐으로 '현신된 남성도들이 활기있게 움직이는' 교구와 교회로 일어서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군전도회 군복음화 위한 활발한 움직임 기드온전도운동 계획 중



▲ 카투사 장병 전도집회. 이날 모인 장병 대부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였다.

지난 9월 한 달 동안 미군부대 카투사 장병전도집회(15일), 2개 사단을 대상으로 하는 장병 진중세례식을 실시했던 군전도회는 10월 들어서도 군전도회·십일 인전도회 연합수련회(12-13일), 모 사단 연대의 십자말 준공예배(15일) 등을 앞두고서 준비하고 있으며, 11월 중에는 1개 사단의 장병들을 대상으로 진중세례식을 실시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특히 군전도회는 군에서 세례를 받고서 전역 후 장남관에서 거주하고 있는 신자들을 충현교회로 기드온전도부'를 세우고 본격적인 실무작업에 들어갔다. 물론 이 운동의 대상자들은 아직 아무 교회에도 등록하지 않은 무교회 신자들이다. 이 일을 통해 나라를 위한 사역에 활기가 더해지고 이들 중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아름다운 일꾼들과 지도자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성도들은 관심을 기울여 기도해야 하겠다.



벌써 10월 첫 주일이다. 이제 교회의 모든 일도 마치 막 4/4분기만을 남겨 놓게 되었다. 서서히 한 해를 정리하면서 1999년도를 내다보는 중요한 시기를 맞은 것이다. 이런 시기일수록 하나님의 성도들은 분주한 입술을 잠시 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깊이 느낀다.

이미 새벽마다, 금요일 밤마다, 그리고 매주일 오후 시간마다 회회를 위하여 중보하는 기도들이 끊이지 않았거니와, 이제는 보다 많은 성도들에게 기도의 동참이 필요할 때이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1999년도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당회에서는 조직 개편과 교회 전체적인 일꾼 임명을 위해 각 위원회별로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고, 교구에서는 교구일꾼 및 서리집사 추천 등을 위해 분주하다. 그리고 교회학교와 찬양대 등에서도 이미 내년도 사업계획을 짜고 있다.

이러한 때에 성도들은 더욱 새벽을 깨우며 모든 공경회에 성실히 참여하면서 회회를 위한 중보기도의 사역을 더욱 힘있게 감당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교회 지도부가 충성되어 많은 바 사명을 감 감당하여 말씀 사역과 행정 사역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5대 목표가 각 부서와 기관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가장 합당하고 아름답게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하겠다. 그리고 젊은이들의 신앙이 확실히고 분명하게 세워지면서 이들을 통해 교회의 목표들이 구체적으로 실현되어가고, 이들이 선배 성도들의 아름다운 신앙을 잘 계승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겠다.

이 모든 소중한 간구들을 통해서 1998년도 가을은 요란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이루어진 계절로 기억될 수 있어야 하겠다.



김창인 목사

아리엘(예루살렘)의 암제와 구원

(이사야 29:1-8)

“범죄하지 않으면 손덜 자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이 죄를 범하였는데도 이 백성을 괴롭히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치하시는데 예루살렘이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누가 감히 손을 대겠습니까.”

1. 예루살렘이라도 범죄하면 징계를 당한다고 애고합니다

(1) 슬프다 아리엘이여

“슬프다 아리엘이여 ...”(1절)
1절이 ‘슬프다’는 말로 시작이 되는 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만민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하늘과 땅에 넘치도록 쌓아 놓고 우리에게 주려 하시는데 인간들은 망할 것만 골라서 하니 슬픈 일입니다.

세상에 내 가지 슬픈 탄식감이 있습니다. 첫째로, 만물의 탄식감 노릇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물을 잘못 이용할 때에 만물이 사람을 향하여 탄식합니다. 둘째로, 사람들의 탄식감이 있습니다. 자식 노릇을 바로 하면 부모님의 자랑감이지만 그렇지 못하면 부모님의 탄식감입니다. 부모님이 훈육하시던 자식에게 자랑감이 되지만 부모님의 책임을 못하면서 자식들에게 괴로움만 가지면 자식들에게 탄식감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성도의 탄식감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보아서는 괜찮은 사람 같으나 성도가 볼 때 탄식할 수밖에 없는 자가 많습니다. 넷째로, 성령의 탄식감이 있습니다. 죄와 어려움은 하나님의 임의 탄식감이 되지 말고 사람의 임의 탄식감이나 성도의 탄식감도 되지 말고 만물이 볼 때에도 탄식감이 되지 않아야 하겠습니까.

“아리엘”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로, 본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하나님이 택하여 힘을 주심으로 사자처럼 된 자란 뜻이니 잘 통솔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계명에 항복을 죄는 향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는 향로와 같이 귀하게 쓰임을 입는 아리엘(향로)입니다.

이런 아리엘이라는 말의 상징적인 대상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사자처럼 힘을 주어 세우신 도시이고, 택함을 입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룩한 성이 있는 도성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입고 모자람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보금을 받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만민을 위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으로 복받은 도성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어찌하여 “슬프다 아리엘이여”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죄를 범하였습니까. 첫째로, 예루살렘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면서도 자기자신을 완이 좋아서 잘 사는 줄 알고 교만하였습니까.

둘째로, 하나님께 받은 복을 악한 데 썼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에는 외식 종교가들만 자리를 잡고 호명하는 성읍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이 범죄한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하시고 벌을 내리시겠다고 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면으로 불러 진을 치며 너를 에우며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사 29:3) 그래서 강하고 잔인한 이방나라 앗수르를 불러 예루살렘을 포위하라고 하십니다. 앗수르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들은 성밖으로 높이 토성을 쌓고 높고 그 위에 올라가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 보며 활을 쏘니다. 이때에 예루살렘이 나가서 앗수르와 싸우자니 무기가 없고 성 안에서 기다리자니 굶어 죽을 판입니다.

(2) 예루살렘이 포위된 형편이 어떠한 것이라고 합니까

첫째로, 멸절에도 슬픔만 있을 것입니다. “연부년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필경히 아리엘을 괴롭히려 하니 내가 슬퍼하고 애곡하리...”(1, 2절)

예루살렘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이 징계하시므로 원수가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였습니까. 그러니 예루살렘에 안식일이 오고 유월절이나 맥추절 같은 절기와 명절이 해마다 돌아온들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이러한 일을 당하면 보통 때에도 슬프고 괴롭지만 명절이면 더욱 그렇습니다. 연부년 절기는 돌아오지만 범죄하므로 기쁨은 없고 슬픔과 탄식만 남아 참으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또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짧으심도 아니고 하나님의 권능이 모자람도 아니라 예루살렘이 하나님 앞에서 매맞을 것만 골라서 행한 결과입니다.

둘째로, 할 말이 없어졌 것입니다. “네가 낮아져서 땅에서 일어나며 내 말소리가 나직히 티끌에서 날 것이라...”(4절)

전에는 서로 잘났다고 교합을 지르며 호언장담하였으나 원수에게 포위를 당하고 나니 싸움 힘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지고 절망이 퍼지거나 사람들의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합니다. 게다가 원수는 토성을 높이 쌓고 “이놈들이, 항복을 안 할테면 나와서 싸우자” 하며 교합을 지를 때에 입은 있어도 대답을 못합니다. 죄를 범한 사람은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어집니다. 또한 “다시는 그러지 않을테니가 살라 주세요” 하며 간신히 틈에서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범한 죄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입니다. 사람 앞에서 담대하게 말하지 못하는 자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택하여 사자처럼 힘

을 주셨고 제사장 백성으로 삼으셨으나 범죄하였기 때문에 사자 같은 자가 거꾸로 땅에서 티끌을 비벼대며 나직히 말할 정도로 처참해졌으니 죄값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2. 예루살렘이 범죄하였어도 사람은 함부로 손을 대지 말라고 하십니다

(1) 범죄한 예루살렘이라도 하나님의 허락 하심 없이는 원수가 손대지 못합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결과로 무서운 정세를 당하여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사람이 함부로 예루살렘을 손대라고 허락하지는 않았습니다. 원수가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것까지는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나 정절 때까지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 혹시 실수와 허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시로 주시기를 기다리면서 그가 회개하고 바른 일을 하도록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버리시기 싫으신 사람이 함부로 하나님의 종에게 손을 대었다가는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는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지라도 네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불리기가 거 같으리니 그 때에 각각간 갑자가 이를 것이라”(사 29:5)
“그런지라도”는 ‘아리엘인 예루살렘이 죄를 범하므로’ 하나님께 매를 맞아 원수가 포위하는 것까지는 허락하였을 지라도 라는 말씀입니다. “... 세미한 티끌 같겠고 ... 불리기는 거 같으리니”는 예루살렘을 업신여기고 예루살렘의 백성이 섬기는 하나님마저 업신여기던 자들을 바람에 불려가는 것같이 처치해 버리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앗수르 군대를 향하여 하신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 그 일이 경각간에 이를 것이라...”(5절) 예루살렘이 비록 범죄하여 앗수르 군대가 18만인정 많이나 와서 포위하였는 하였으나 그들이 예루살렘을 업신여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업신여겼습니다. 앗수르가 여러 나라를 정복하였으니 예루살렘도 정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여러 나라의 우상을 모두 쳐부숴서 예루살렘이 섬기는 하나님마저 처치해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니 하나님이 앗수르를 손길에게 처치하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시의 백성을 때리기도 하시고 간수하기도 하십니다.

(2) 하나님께서 처치하실 때에 앗수르가 어

떻게 됩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벽력과 지진과 큰 소리와 회리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6절) 하나님께서 벽력과 지진과 우뢰와 회리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앗수르를 처치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보장을 치서 영방을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주된 자가 꿈에 먹었음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음지라도 더면 면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7, 8절).

3.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백성을 업신여기는 일은 공상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는 꿈꾸는 자와 같을 뿐입니다. 앗수르 왕이 ‘내가 예루살렘을 정복한다’고 마음을 먹었으나 그것이 공상이라는 말입니다. 앗수르 군대 18만5천 명이 하룻밤에 멸망을 당하고 큰 소리 치던 앗수르 왕은 부끄러워 미리를 싸고 울면서 고향으로 도망가서 자기의 자식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무서운 실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업신여기던 자가 자식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참으로 무서운 실연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는 일은 공상일 뿐만 아니라 벌을 받아 자기가 먼저 망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종을 대적하는 일은 되지도 않을 일이며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잘못하면 우리는 그를 위하여 기도할 뿐이지 함부로 하는 말을 하다가는 오히려 하나님께 벌을 받습니다.

셋째로, 범죄하지 않으면 손덜 자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이 죄를 범하였는데도 이 백성을 괴롭히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치하시는데 예루살렘이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누가 감히 손을 대겠습니까.

죄와 어려움은 하나님의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대적하지 않고 그들이 잘못할 때에 위해서 기도하고 괴롭히지 말아야 합니다. 범죄한 것은 하나님 앞에 대어 놓고 용서받아야 합니다. 앗수르보다 더 강대한 대적이 쳐들어오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죄와 어려움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



김성광 목사

그분의 경고 (요한복음 8:21-25)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야로 마음에 모셔들이지 않으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집 중에 죽을 것입니다. 그분은 길을 소개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바로 그 길이십니다! 그 길을 여러분이 마치지도 안 것처럼 앞서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임을 기억하십시오. 만약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가신 곳에 갈 수 없습니다.”

불신에 대한 경고

불신에는 커다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경고를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다급한 마음으로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불신에 대한 경고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메시지입니다. 마치 이러한 경고가 자신과는 상관없는 것인 듯 않아 계시면 안 됩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에게 전달되고 있는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교만인 한나님을 대항하는 가장 큰 죄악이며 우리 중 그 어느 누구도 이 교만의 문제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너무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대중 넘길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으로 설교를 듣는 모두가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불신은 천국문을 닫는 교만

오늘 읽은 본문은 성전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에게 설교하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불신의 죄 때문에 그들의 생명이 되는 메시야가 그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음에도 메시야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교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또한 왕으로 환영하기는커녕 그를 핍박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박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그분에게 찬양과 경배를 드리려 할 때도 불구하고 그가 누구인가에 대한 논쟁만 복잡하게 늘어놓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야로 보지 못했을까요? 그들이 메시야를 기다리며 고대해 왔던 믿음은 어디로 갔을까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은 요한복음 8장 21-25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21절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것 같고 내가 가는 곳은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죄사함을 받아 주님과 함께 화복하여 구별된 삶을 살지 아니하면 죽음과 어둠의 권세를 물려질 수 있는 빛을 얻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그분과 같이 갈 수 없는 사람들은 불행합니다. 우리는 사랑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은 진정으로 믿어 그분이 가는 곳에 우리도 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21절에서 자신은 그곳에 가시

지만 ‘그들’은 가시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그곳에 갈 수 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앞에 모셔 놓고도 자신들의 욕구를 만족시켜 줄 세상적인 메시야를 찾고 있었습시다.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것은 그들 스스로가 천국 문을 닫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불신으로는 천국에 결코 들어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었으며 예수님은 철저한 순종을 통하여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그들은 그곳에 갈 수 없었습니다. 불신은 죄이며 죄인은 자들은 결코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들은 그 죄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의 눈을 가리우는 불신

불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죄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들 앞에서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세상적인 것들을 찾았기 때문에 영적인 진리가 지나가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가르침에 그들은 점점 더 화가 났습니다. “유대인들이 가르쳐서 저가 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저가 자결하였는가.” 그들은 무덤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서로 인정거리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자결을 하라고 한다는 막담을 서슴지않고 했습니다.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는 거치는 돌이 되었으며 결국 불신으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을 처하게 된 것입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나고 나는 위에서 나오니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거니와 이 세상에 속하여 지니라.” 예수님은 23절에서도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눈치를 보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씀은 단도직입적인 것이었습니다. “너희는 아래서 나고 내가 세상에 속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듣고 그들은 회개하여 자복하기를 다독 화를 뱉습니다. 그들의 교만과 불신이 그들의 영적인 눈을 완전히 가려 버린 것입니다. 하늘에서 오신 메시야를 앞에 놓고도 세상적인 메시야를 찾고 있었으니 그들이 예수님을 찾을 리가 없었습니다.

진리를 거절하는 불신

세상적인 본성은 신령한 것을 거부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화가 난 것이 사실이지만 그 말씀이 다른 선생들의 말과 다르게 힘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습시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기사와 이적들을 몸소 체험한 자들이거나 아니면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오병이 있는 기적을 일으키시며, 눈먼 자들이 빛을 보고, 문둥병자들이 깨끗함을 얻는 기적들이 있었습시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상적인 메시야를 찾았습시다. 이 사람들은 세상을 구원할 자가 다윗의 계보로부터 오리라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불신으로 인하여 생명이 영생하도록 속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24절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길 곧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유대의 세력자들을 죄인으로 단정한 이 말씀은 그들을 격분시켰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은 진리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매우 격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조소하는 질문을 합니다. “내가 누구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예수님께서 초대에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을 밝히는 빛이라고 처음부터 말씀했지만 그들의 불신과 교만은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답답하게도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행위에 젖어 있었던 유대인들이 사실은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었습시다. 그들의 종교적 행위는 생명이 아니라 죽음을 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예수님께 “당신은 누구십니까?”라는 종류의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내 안에서 발견될 수 있는 불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야이십니다. 그분은 바로 세상의 구원주이십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주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

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습니다. 충현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성회로 모이는 목적은 바로 이 예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예수님 이외에 여러분의 세상적 욕구를 채워 줄 다른 메시야를 찾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은 누구냐?”라는 의심의 질문만을 던졌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에 귀를 기울이지요. “너희는 아래에서 나고 나는 위에서 왔노라.”

만약 여러분 중에 ‘나는 유대인과 같이 교만하며도 않고 예수님을 거절하지도 않았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은 오늘 설교의 핵심을 놓친 것입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나는 유대인보다 신하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메시지는 유대인들보다 우리가 더욱 들어야 했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보십시오. 아니, 오늘 여러분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만을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은 얼마나 겸손한 고백인지 모릅시다(요 15:5). 교만과 불신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겸손한 마음으로 다과 간다면 생명의 삶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에는 어두움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경고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께 경고합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야로 마음에 모셔들이지 않으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집 중에 죽을 것입니다. 그분은 길을 소개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바로 그 길이십니다! 그 길을 여러분이 마치지도 안 것처럼 앞서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임을 기억하십시오. 만약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가신 곳에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이 영생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야를 고대했으나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주복하십시오! 십자가속고하십시오! 경고는 여러분의 귀에 들려드립니다. ■

선교부시탐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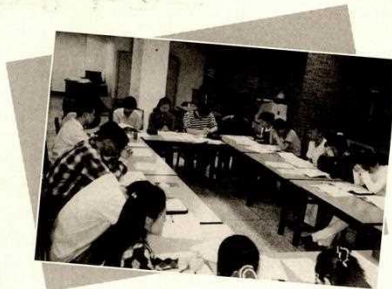
세계를 꿈꾸는 젊은이 - 세콰이

미약한 시작

1994년 인도네시아 단기선교 참가자들의 후속 기도모임과 대학부 내 선교를 위한 소수의 자발적인 기도모임이 합쳐지면서 생겨났다. 교회 안에 처음으로 있어지는 대학, 청년의 연합기도모임이다. 세계 구축구석의 기도 정보를 담은 '세계 기도정보(operation world)' 책자를 중심으로 선교지를 위한 기도와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와 교회를 위해 기도를 하고 있다. 어떤 날은 단 1명만이 참석하여 혼자 기도를 하기도 하며 힘겹게 기도모임을 이어왔다. 96년 가을부터 선교학교 96대회 참가자와 선교 관심자들, 헌신적인 기존 멤버들이 세콰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가다듬고 세콰이('세계를 꿈꾸는 젊은이'의 약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힘차게 모이기를 시작했다.

세콰이의 찬양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15분부터 선교관 지하 2층 메추라기홀에서 세콰이의 작지만 세계를 품는 모임이 진행된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솔직하게 말리려는 지체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먼저 모아 찬양이 드려진다. 김지효 형제와 오상균 형제의 인도로 힘있고 솔직한 고백



의 찬양이 울려 퍼진다.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헌신을 확인하며 주님의 다스리심을 선포하는 시간이요, 우리의 상한 마음과 주님의 회복시키시는 손길을 느끼는 시간이기도 하다.

세콰이의 기도

이근욱 형제가 '세계기도정보'와 여러 자료를 참고로 하여 헌신된 기도회를 인도하고 있다. 우리가 가보지도, 들어보지도 못한 나라의 전반적인 상황(경제, 정치, 종교, 언어, 문화)을 간단하게 짚어보고 그 나라의 기도 제목들을 읽으며 마음에 와 닿는 부분들을 놓

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다. 알지 못하는 나라와 족속, 사람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동안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세콰이에서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여 선교 훈련차 런던에 있는 오온주 자매와 청년부와 대학부에서 선교사로, 또 훈련생으로 있는 여러 지체들을 위해 기도한다. 이들의 구조적인 필요(영적인 면과 생활적인 면)를 놓고 기도하여 선교에 관한 꿈들을 키워 나간다.

세콰이의 훈련

저녁 8시 30분부터 10시까지 말씀으로 서로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다. 한 번

을 해도 정착하게 하나님께 구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 시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기본적인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배우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된다.

세콰이의 소망

두세 사람으로 시작된 세콰이. 지금은 보통 20-30명 정도가 매주 정기적으로 참석을 하고 있다. 세콰이는 특별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젊은이들의 소박한 모임이다. 선교에 대해 관심이 구체화되기 원하시는 분, 선교헌신자들은 당연히 오셔서 중보기도의 훈련과 실제에 참여하시고 기도의 동역자도 만나기를 바란다. 비행기를 타지 않고도 세계를 돌아다닐 수 있는 방법! 이 기쁨을 함께 누리기를 세콰이 식구들은 원한다.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매주 월요일 오후 7:15 - 10:00
선교관 지하 2층 메추라기홀
7:15-7:40 찬양
7:40-8:30 선교학교와 선교지를 위한기도
8:30-10:00 말씀 교제

선교연장 이야기

수리남 안식절 선교사
설립예배를 마치고

수리남 선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께, 특히 오늘 드려진 베인 사료교회 설립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로 드리며, 하나님 나라의 승리의 소식을 전하도록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월요일(14일)부터 화, 수 그리고 금요일까지 4일간 베인 사료를 마따의 성도들과 방음해 이들을 견고, 성경책을 나눠 주고, 가족별 사전을 적으면서 설립예배 초청장을 전했습니다. 천주교뿐이 동네에 우리가 가서 교회를 세운다고 하니 천주교에서는 술을 대접하면서 교회 건축 반대 여론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금요일에 가니까 마따 교인이 저에게 학교 교장을 만나봐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주일중 어떻게 공립학교 건물을 특정교회에 빌려 줄 수 있는지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장을 만났는데 처음에는 안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며칠만 사용하고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고 약속하고 사용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베인 사료에 가서 우리를 초청했던 다윗 형제를 만나 교회 건물 애기를 하니 한 달 내로 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디언 건물은 기둥을 세우고 뚜들리라는 일로 지붕을 씌우면 되니 돈도 적게 들고 빨리 만들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빌린 학교 교실이 너무 좁아 다 앉지를 못할 것 같아 제가 교묘에 다시 한번 가서 빌린 천막을 주면서 주일 아침까지 교실 옆에다 쳐 놓으라고 다윗 형제의 사위에게 이야기하고 약속까지 받았는데 주일 아침에 마따의 교인들과 함께 가보니 안되어 있었습니. 이유를 물으니 아침에 천주교 신부가 와서 미사를 드리고 지금 집집마다 방문하고 있으니 5명 정도밖에 안을 것 같은데 칠 필요가 무엇이야는 것이었다. 그때 정말 신부가 우리 앞을 지나 다른 집들을 방문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니 격정 말고 천막을 치라고 했습니다.

예배 직전에 마따에서 간 우리 60명의 교인들과 몇 사람의 베인 사료의 사람들만 모여 찬양을 시작했는데 나중에 베인 사료 사람들 교실이 가득했습니다. 약 80명의 베인 사료 사람들이 모여 모두 140여명이 교실 안과 밖에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예배 시간에 베인 사료 사람들에게 하나님 지금 부르시며 천국에 갈 수 있느냐 물으니 어느 부인 한 사람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가고 싶으냐고 물으니 앞에 앉았던 추장이 제일 크게 대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추장이 처음과는 달리 교회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이 예배는 지난 6개월간 기도한 마따 교인들과 또 함께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이 받으실 것입니다. 이곳 은교지 응원들의 소식을 보내 주신 많은 분들에게 일일이 답장을 보내드리지 못하는 죄송함과 함께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금 선교위원회에서는...

1. 선교유적지 답사

선교연구원에서는 선교 역사 연구 및 선교사의 삶을 조명하는 프로그램으로 선교유적지 답사를 계획하고 있다. 제8기 선교연구원(원신도 선교훈련) 수강생 및 60여명과 함께 돌아볼 곳은 외국인 묘지이다. 여러 이유로 한국에 왔다가 이 땅에 묻힌 이방인들. 그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다 부르심을 받은 선교사들도 있다. 그들의 삶을 통해 우리 자신의 선교에 대한 자세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어서라 생각한다.

· 일시 :

1998년 10월 10일(토) 오후 3시

· 모임은 장소 :

외국인 묘지 앞(2호선 합정역)

2. 10월 3일
17교구와 연합,
100여명 외국인 근로자 초청

국내외국인선교부에서는 어제(3일) 17교구와 연합 초청 전도 체육 행사를 가졌다. 왕남 초등학교에서의 체육 행사와 충현기독교회에서의 영성훈련을 통한 '외국인 근로자 끌어안기'에 관한 자세한 기사는 다음 주일(11일) 주간충현에 게재될 예정이다.

전 도

송 에 스티대학부 1학년)

역전에서 사람들이 붐비는 곳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풍경이 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팻말을 들고, 스치거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하는 모습들이다.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면 죄책감이나 괜히 부끄러운 생각에 얼른 그곳을 지나게 된다. 하지만 요즘 들어 부쩍 그 노력에 비해 효과가 너무 적다는 생각

시대가 변했다고

전도 방법도 변해야 하는 걸까

이 된다. 예전에는 홀로 부끄러움도 없이 주님을 전하려 하니가 사람들도 신기해 하고, 도대체 얼마나 대단하기에 저 정도로 저러나 싶어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제 아무도 들으려 하질 않는다. 너무나 자주 왔던 풍경들이고, 되려 짜증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었다. 어떤 경우엔 조롱하길 하라고 소리치는 사람이 영웅처럼 되어 버리니 답답하고 안타깝다. 세상이 변했으니 전도의 방법도 변해야 하는 것일까? 그렇다면 어떻게...?

꼭 학원 도사에서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들을 어떻게 바꾸어야 된다고 보느냐는 생각이 드는 한편 예전에 박해받으며 전도하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들이 떠올랐다. 그들도 힘들긴 마찬가지였으리라. 팔이에서 소리치며 주님을 증거하던 그분들. 전도에서까지 세상에서처럼 효율적인 것을 잠시나마 찾으려 했던 내 모습이 다시 한번 부끄러웠다. 그들처럼 용기를 내지도 못하면서, 그 어떤 꾸밈이나 가식없이 있는 그대로 자신이 알고 있는 주님을 전하는 것이 가장 옳고 좋은 방법일 것이다.

빈 들에서 외치는 소리가 오늘도 있을 것이다!

삶의 권태로움을 느낄때

박 근 호(대학부 5학년)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임버터처럼 은퇴 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곤 했다. "난 말이지, 정년 이 되어 은퇴하면 말야야, 내가 사둔 집에 정원원을 만들고 호수도 만들고 개와 고양이를 기르면서..." 하는 식의 이야기를 했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들던 그의 친구는 자신의 친구가 사 둔 집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보게 되었다. 그런데 막상 그 집 에 가보니 그곳에는 황량한 땅에 거의 무너져가는 집 하나만 존재할 뿐, 친구가 이야기하는 어떠한 것에 대한 준비도, 구조물도 찾아볼 수 없었다. 과연 그 집을 본 이가 다시 자신의 친구의 이야기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이 땅에 소망할 두는 삶이 아니다. 교회 다니는 이는 누구에게 묻든 지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도라고 인정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나라에 대한 투자가 보이지 않는다면 과연 그 누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도라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아침 이슬과 같이 짙을 것임을 알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면,
기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일을 행할 수 있을지 모른다**

아브라함은 그 땅을 소망하여 이 땅에서는 장막집을 짓고 살았고, 사도들은 예수님이 마련해 주시는 처소를 기대하면서, 자신의 재산과 목숨을 내놓을 수 있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아침 이슬과 같이 짙을 것임을 알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면, 우리는 출옥을 며칠 앞둔 죄수처럼, 기쁜 마음으로 다른 죄수들에게 많은 일을 행할 수 있을지 모른다. 당신은 아침에 일어나서 무슨 생각을 하는가? '오늘도 수업에 늦겠네.' '아, 지루한 하루가 또 시작되었군.' 그리고는 반복되어 가는 듯한 삶의 일상에서 지쳐서, 다가를 미래에 대한 소망함을 상실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거목들에서 배워야 할 것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앙이다. 성경에 나오는 그 거목들은 영원에 대한 소망함을 생활에까지 가져올 수 있었다는 것이 우리의 삶과 가장 큰 차이라고도 할 수 있다.

참고).

6:16 "여호와와 그의 대위장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 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아 춤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여기니라", 21 "...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저가 네 아버지와 그 온 집을 버리고 나와 맹약하니 나로 여호와와 맹약이라 열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자녀 입니다. 옛날 고사여 '60 막은 할아버지가 80 막

백성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내려 놓고
다들 따라가야 하는 생략 필요

은 얼마 앞에서 책동웃을 입고 춤을 추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 뻔뻔한 거 아닙니까? 너무 미련한 큰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린이와 같이 친진난만해졌으면 좋겠어요.

7:6, 7 "... 오늘날까지 집에 거처지 아니하고 장막과 회막에 거처며 행하였으니 ...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여제하여 나를 위하여 방막을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말하였느냐 ... 다윗이 말하시요, 자신은 멋진 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아래 있으니 성전을 짓고 싶다고요. 나단도 그러하고 합니다. 기쁨받은 받은 자와 하나님의 선지자가 합의를 했으니 아니다 더 완벽할 수 없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어떤가요? 이들과 다르지요. 다윗은 보이는 성전을 생각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건물보다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바라셨지요. 이것 아주 중요하니까, 우리는 때론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회막에 계시는...' 하나님을 어느 한 곳에 붙잡아 매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디든 계시며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성전보다 성막을 더 원하셨습니다. 한 곳에 고정된 건물이 아닌 백성이 가는 곳에 늘 따라가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건물 자리에 빠져 있기에 마치 교회를 벗어난 하나님을 시야에서 벗어난 사람인 양 살지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이 가는 곳에 늘 함께 하시니

다.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어떤 보이는 것에 매여 계시지 않습니다. 이걸 알지 못하는 흉니와 비느라는 연약함을 들고 전쟁에 나갔다가 죽고 연약케마지 패망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우리가 외치는 십자가마저 십자가 자체를 따진다면 나무에 지나지 합니다. 우리 그 나무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지요. 아, 늘 역동적인 신 하나님. 주복 들어 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7:14, 15 "나는 그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니 내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적으로 정제하리니와 내가 네 앞에서 행한 악행에서 내 온몸을 깨끗한 것같이 그에게서서는 깨끗하지 아니하리라" - 이런 멋진 단어 때문에 ... '사람 막대기', '인생 채적' 생각해 보니 좋은 의미는 아니군요. 그걸로 맞으면 얼마나 아플까? 그것을 치시는 하나님의 심정은? 사탄의 매, 아무튼 다윗에게 엄청난 축복이요. 이 말씀 때문에 나중에 솔로몬이 죄를 범해도 그때에 패하지 않고 그 아들이 때 본원시킨 후 나중에야 할 수 없이 멸하시죠.

14:25 "은 이스라엘 가운데 암살품 같이 아람다움으로 크게 칭찬받은 자가 없었으니 ...", 26 "그 머리털이 무거우므로 ...", 15:6 "...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도적하리라" - 멋진 낱자 암살품의 예집이다. 얼굴뿐만 아니라 일도 참 잘합니다. 백성들 재판도 해주고 정갈 맞잡니다. 왕의 아들이 친절하게, 잘생겼고, 일 잘하시요 ... 어디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외모를 보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참 현명하십니다. 인간의 눈에 이렇게 멋지게 보이는 사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자가 아니니다. 우리도 때론 속지 합니니까? 교회에서도 그렇지만 학교에서도, 멋져보이는 남신배, 이빠보이는 여동기, 후배, 그 기운이 원가조, 그 이맛된 미소로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요? 바라보는 기준을 하나님께로 맞추세요. 이런 암살품의 반역을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윗의 태도도요. "...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라 ..." (16:10)

18:9 "... 암살품의 머리털이 그 상수리나무에 걸리매" - 그 자랑스럽고 멋진 머리털이 결국 자신의 생명을 죽이는 도구가 되는군요. 여러분의 자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생명을 도와 주나요? 성전과 성막, 멋짐과 자랑.

성경통독

사무엘하는 재미있다

강 석 진(대학부 7학년)



사무엘하는 거의 다윗의 얘기지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다윗.

5:10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 늘 알고 있지만 그만큼 잘 먹는 원리. 결과를 원하면 원인을 보세요.

6:6, 7 "... 소들이 뛰므로 옷자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 여호와 하나님의 옷자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시라 ..." - 이 이야기는 연약케를 수레에 싣고 옮기다 소들이 뛰니다 궤를 붙들다 죽은 옷자의 이야기입니다.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안드세요? 연약케가 떨어질 것 같아서 붙든 것인데 말입니다. 답은 3절에 있습니다. 다윗이 붙든 것이요, 저 앞에 연약케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위에 고리를 달고 뿔 수 있게 하라하고, 그리고 메고 옮기라하고(역대상 15장

주님의 사랑 그 어디에 비유할고

박 진 숙(에바다부)

청명한 하늘에는 양떼 구름이 유유히 노닐고 있다. 문득 예수님이 양무리를 이끌고 다니시는 한 폭의 성화를 생각나게 하는 저 푸른 창공의 풍경에 넋을 잃고 한참이나 바라보았다. 유달리 건방증이 심한 내가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찬송가를 할 턱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천재성이 나타났는지 중간 가사가 얼핏 떠오르길래 큰 소리로 불렀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지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나는 성화 속에서 무슨 일인지 주님과 연관시키곤 한다.

청각장애인이면서도 수화를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에서 참으로 오랫동안 방황을 거듭하며 지냈다. 3년 전 에바다부에 출석하게 되었는데 지금은 제법 수화를 배워서 에바다부 가족들과 수화로 대화를 하곤 한다. 외진 곳에서 홀로 쓸쓸히 사는 것이 안타까워 에바다부로 인도해 주신 참 감사하신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던가. 눈을 없애는 그 엄청난 사랑을 표현하지 못할 것이다. 이제는 나도 사람인가보다 하고 느낀다.

아들과 함께 주일에 교회 가는 것을 큰 기쁨으로 알고 살아간다. 사시사철 해바라기 꽃 같은 웃음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사랑을 나누는 전한 형제애를 맛본다. 무엇보다도 교역자님, 장로님, 부감님, 권사님들의 포근한 사랑에 늘 감격하곤 한다. 헌신적인 교사들과 인정 많으신 집사님들의 부지런함을 볼 때마다 참된 복사가 무엇인지 느낄 수 있고 주님 안에서 행하시는 사랑을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된다. 지난 봄에 내가 병원에 있을 때였다. 보호자가 없어서 주변 사람들도 도움을 받고 있었는데 어디에서 전화가 왔다고

아름다운 장치가 열리는 곳,
에바다부로 나아가와
예수님의 참된 위로와 사랑을
느껴 보세요!



저에게 방문하신다는 연락이 왔다. 교구식구들이 날마다 다 떠나가고 하셨는데 누구실까, 늦은 시간에 그 멀리에서 고향을 향해 오신 사모님이 집으로 돌아가시고 난 후 그 밤새 감사의 눈물을 한 바가지나 흘렸을 것이다. 전강이 안 좋아보인다고 영양제를 기방에 넣어주신 권사님, 집사님들 내 어찌 그 은혜를 다 갚을꼬! 공장직속사에서 박스 두어 개 달랑 들고 방을 얻어 나왔을 때도 냉장고, 가스통, 비산벨 온갖 것들 다 챙겨 주시고 설치 해주신 에바다부 가족들이시다. 외롭게 사는 이들을 진정으로 사랑해 주시고 보살피 주시도록 주께서 특별한 분들과 연결을 시켜 주신 것 같다. 양보하고 사랑하고 나누는 것을 항상 옆에서 지켜보던 아들들도 닮아 가려고 한다. 전철에서나 육교에서 구경하는 분들을 보면 아들은 저에게 '엄마 주세요' 한다. 주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주님 나중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진리를 알게 하소서 기도한다.

가슴이 포근한 사람들이 모이는 에바다부에 오시면 사랑을 알 것이다. 주일에 정말 아름다운 잔치가 있다. 장애로 이웃과 가족에게 버림받고 외진 길목에서 슬피 울고 있을 우리들의 이웃은 없으신, 주저하지 마시고 이곳으로 오셔서 예수님의 참된 위로 받으시고 참된 사랑을 느껴보시길 희망한다.

끝으로 농아아들을 진자식처럼 아껴 주시고 기도와 물질로 사랑으로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권사님들 집사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에바다부를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의 수고를 하나님이 엄청나게 축복해 주실 것이다.

IMF 통한 하나님의 은혜

최 종 란(집사, 1교구)

삼할때! 나는 토대 신앙이면서도 세상 것 다 좋아하고 교만, 욕심 다 가진 사람이었다. 결혼 후 대천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살다가 87년도에 역삼동 구역인 구역으로 이사를 왔다. 그때부터 출원교회에 다니면서 아이들끼리 어리다는 핑계(특용 3개, 도형 1개)로 교회 등록도 하지 않고 3년이란 허송 세월에 주일도 많이 범하였다.

큰 아이가 영아부에 등록하면서 믿음의 어머니인 김교구 권사님의 인도로 간신히 등록하게 되었다. 당시 구역장이시며 벌난 아들들을 데리고 구역예배 드릴 때마다 친절하더니처럼 돌아와 주신 분이시다. 큰 아이가 중학생이 되었지만 지금도 가끔씩 안부를 물어보시는 권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고 사랑하시길 교회 등록 후에도 계속 이어졌다. 주위 친구들의 부러움을 샀고 하는 일마다 잘 되었으니 말이다. 90년도 봄의 특별 새벽기도회를 기억한다. 어릴 때 어머니 손잡고 부흥회때나 가는 데로 기억하는 믿음없는 나로서는 몇 년만인가? 결혼 후 처음이고 그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다. 교회가깝게 장막을 달라는 기도와 신앙적으로 살겠다는 서원까지 해놓고 까마득히 잊고 산 나였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 해 가을 교회 근처에 좋은 장막을 주셨고 우리 가정에 살아 역사하심을 일깨



하나님 앞에 한 서원은 까맣게 잊고
세상 것 쫓으며 살았던 지난날

지금은 완난과 위기 통해
가정 회복시킨 주님께 감사

워 주셨지만 우리 부부는 스스로 잘 나다고 생각하며 더욱 교만만 키워갔다.

그동안 남편은 사업일로 바쁘다는 핑계로 등록도 하지 않고 세상 온갖 것을

즐기며 자기 주먹만 믿고 산 사람이다. 부부는 일심동체인가, 다투는 쫓아나. 믿

을 없는 남편과 살면서 나는 그보다 더 못할 때도 많았던 것을 이 시간 하나님

께 고백한다. 생활에 본이 되지 못할 때는 남편으로부터 '교회 장로님의 딸이...'라는 질책을 들을 정도였다.

결국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보다 못해 우리 부부에게 매를 드셨다. 97년 5월 출판업 10년만에 40억 부도로 세상에서 골짜기 못하게 묶어 버리셨다. 저급 생각하던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줄 믿는다.

우리 가정에 IMF가 6개월 먼저 와서 IMF를 통하여 해결시켜 주신 이도 주님 이신 것을 고백한다. 예수님은 진리라 는 위임목사님의 고백과 같이 나는 회개와 눈물을 흘렸다. 이제껏 하나님을 입술로만 증거하고 토대신앙의 탐을 쓰고 교만하였다고, 1년 가까이 기도 중에 5월부터 좋은 직장도 주셔서 생활하게 하시고 9월부터는 남편도 일을 시작하면서 교회에 4주를 출석하고 지난 주에는 중증2부 학부형 초청회에도 참석하였다. 나는 청년2부에 등록하여 그룹성경공부를 통하여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고 있다.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더욱 사랑받을 수 있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며, 특히 1교구 목사님, 전도사님과 교구 식구들과 멀리 계신 부모님의 기도받으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다. 하나님께 자녀로서 영광돌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와 간절히 기도하며 남은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모두 맡긴다.

지체들 소식

영아부
새로운 마음으로 10월 출발

지난주에 교사 월례회를 가졌다. 지난 한 달 동안의 행사를 돌아보며 잘된 일과 부족한 일들을 점검하며 돌아올 10월을 준비했다. 10월에는 '아빠와 함께 하는 새친구 초청잔치' 행사를 통해 새 친구를 초청하면서 영아부에 속해 있는 아파들도 참석하는 날(25일 9시, 11시)로 정했다. 이번 행사는 영아부의 한 엄마의 건의로 이뤄지는 것이라 뜻 깊은 날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날이 되기를 기도한다. (송해경 통신원)

유년부
환한 미소로 예수님을 전해요

토요일 오전 12시, 노년초등학교의 종은 울리고, 아이들이 하나, 돌, 파르르... 이 아이들 틈 속에서 빙그레 웃으며 예수님을 전하는 유년부 전도팀 선생님들. 토요일이 되면 선생님들을 기다리는 아이들도 많답니다. 그 선생

님들을 소개할게요. 듄직한 탐장 장용희 선생님, 이쁜 한계순 선생님, 엄박한 이 포근한 마현미 선생님, 정말 재미 있는 이미화 선생님, 환하게 웃으시는 박옥자 선생님이는 노년초등학교 전도팀이랍니다. 아이들이 어려서 부모님들의 손바를 받아야 하고 늦잠 자는 어린이를 깨워 교회에 데리고 오기가 힘들다고 하지만, 그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배우며, 나누시는 선생님들 정말 멋지죠? 참, 예배 전 - 후로 아이들을 교회로, 또 집으로 데려다 주시기 위해 차량 봉사를 하시는 장지란, 양승복, 오해실 선생님도 귀한 사랑을 위해 충성하시는 분들이랍니다. (오은혜 통신원)

중등1부
제2회 학부형 초청 학회

지난 주에 제2회 학부형 초청학회회를 가졌다. 약 90여명의 학부형들이 참석하여 신앙 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 주었다. 특별히 헌 대담중학교 교감으로 계신 부장 김단용 강로님이 특강을 해 주셔서 모신 학부형들에게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

중등2부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원해요

지난 주일에는 3학기말 시험이 있었다. 12문항 중 마지막 문항에 현재 생활 중 감사의 조건을 써보라는 문항이 있었다. 몇몇 친구들은 답을 쓰지 않기도

했지만 이렇게 답한 친구들도 많았다. '하나님을 믿게 해 주신 것 감사, 하나님을 믿는 부모님 감사, ...' 순종하여 답을 쓴 것만 해도 예쁜데 이렇게 아홉답게 답할 줄이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순종하며 아름다운 신앙으로 자라나는 친구들이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미래는 빛이 나라라 믿는다. (나성애 통신원)

정년2부
신앙 성숙 위한 다양한 행사 마련

지난 9월 27일 집회를 마치고 성경암송대회를 가졌다. 그동안 회원들은 암송 범위인 베드로전서 1장을 독상하면서 준비하여 왔는데, 이날 9명의 신청자가 하나님과 교우들 앞에서 암송하는 순서를 가졌다(사진). 한편 오는 10월 18일에는 '50대 성도의 시대적 사명' (강사 김재철 목사)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가질 예정이다.

소망부
말씀 사랑의 열심 과시한 성경암송대회

9월 27일 성경암송대회를 실시하였다. 암송 범위는 장민 16장 1-20절이었다. 암송은 33절까지 암송하는 저력을 보여 주시기도 했다. 총 30명이 출전하여 어느 젊은 부서에서도 흔대내기 어려울 만큼 사랑의 열심을 과시하였고 심사위원들은 우열을 가리기 힘든 실력을 가늠하느라 즐거운 고민에 빠지기도 했다. 1등의 영예는 한 자의 오차도 없이 33절까지 낭랑한 음성으로 암송하신 2남의 홍순구 집사님에게 돌아갔다.

150구
더 이상 '이대로'는 안됩니다

기세 좋게 출발했던 한국교회가 밑에 구멍이 나서 차츰 침수되고 있는데 감관 위에서는 '이대로'를 외치며 견뎌내는 무리들. 때 밭과 감관 위라는 위치와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건만 깨닫지 못하는 어쩔고, 지금 어디에서 있습니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아직은 괜찮습니까? 절망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고난을 당함은 저 감관 위에서 '이대로'를 외치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아끼시. 그들을 위한 기도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큰 배려입니다. "오라 우리가 굳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시 95:6, 7) (한숙정 통신원)

탐방 / 크로마하프·만도린관양대



우리는 다윗이 수금과 비파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 교회에도 다윗처럼 수금으로 찬양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다. 이 크로마하프·만도린관양대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1989년에 처음으로 크로마하프 찬양대원을 모집하여 훈련을 한 후에 1990년 1월에 첫 연주를 하며 봉사를 시작하였다. 그러다가 하프가 낼 수 있는 음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3년 뒤에 만도린관양대를 추가로 편성하여 '크로마하프·만도린관양대'로 정착을 하였다. 이후 지금까지 매월 넷째주일 찬양예배 시간에 봉사하고 있다. 이 관양대의 일꾼은 대중에 구자남 권사님, 지휘자는 강호원 집사님, 총무는 박희숙 집사님, 반주자는 채은실 집사님이다. 크로마하프가 아직 교회음악으로 자리 잡기 전에 우리 교회가 선구자적 실험정신으로 만든 이 찬양대는 관심있는 다른 교회의 기준이 되고 있다.

이 찬양대의 특성은 특별히 기악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라도 누구나 다 대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조건이 있다면 단 하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정성을 다 기울일 수 있는 사람이라는 한 단는 것뿐이다. 그러나 들어오는 분이 넓다고 해서 누구나 다 찬양대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찬양대원이 되려면 많은 시간을 연습시간으로 선택해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야 한다. 다른 봉사부서처럼 교회에 와서만 시간을 드려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든 많은 시간을 연습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특별히 봉사를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만이 온전한 찬양대원이 될 수 있다. 찬양대는 조별 활동이 활성화되어 있다. 7-8명이 한 조를 이루는데 성도간의 교제나 연습은 물론 작은 일에 이르러까지 조를 중심으로 활동하게 된다. 조장의 헌신적인 봉사와 조원들의 협조로 각 조가 잘 운용되고 있기에 크로마하프·만도린관양대는 가족처럼 화목하다.

또한 우리 교회의 크로마하프·만도린관양대를 보고 다른 교회에서 관심을 갖고 문의를 해 오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지휘자 선생님을 비롯 찬양대원들은 자부심을 느끼고 이 찬양대가 우리 나라 다른 교회의 모범이 되기를 바라며

화려하지도 장엄하지도 않은 그러나 잔잔한 샘물 같은
음률로 듣는 이들에게 평화와 은혜를 끼치는 찬양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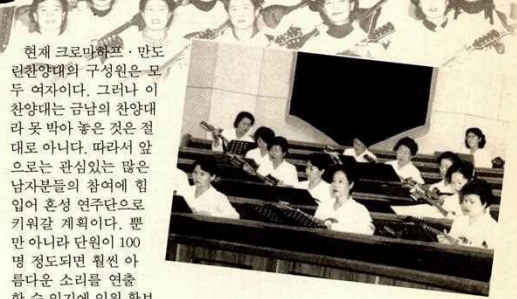
더욱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크로마하프·만도린관양에 관한 축적된 자료가 많이 부족한 실정에서서 음악적 부분의 발전은 큰 과제로 안고 있다. 따라서 지휘자는 기존에 편곡된 곡이 없어서 번번히 편곡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하고 있다. 그러나 미래의 어느때쯤은 각자의 노력으로 하나하나 모아 둔 편곡들을 묶어 모음집으로 출간하는 꿈을 꾸기도 한다. 그래서 이 크로마하프·만도린관양대가 교회 음악으로 완전히 정착되는 것은 물론 한 단계 높은 차원의 찬양대가 되기를 희망한다.

현재 크로마하프·만도린관양대의 구성원은 모두 여자이다. 그러나 이 찬양대는 금금의 찬양대라 못 박아 놓은 것은 절대 아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관심있는 많은 남자분들의 참여에 힘입어 혼성 연주단으로 키워갈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단원이 100명 정도되면 훨씬 아름다운 소리를 연출할 수 있기에 인원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윗이 그

다. 약기가 워낙 무겁기 때문에 몸이 약한 분들은 찬양대를 하고 싶지만 못하고 그만두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것이 대원이 늘어나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되기도 하는데 임원들은 이 일을 두고 참으로 안타까워한다. 그래서 교회의 여건이 허락한다면 점차적으로 약기를 구입하여 비치해 놓고 연습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으면 한다. 특히 한가야 많거나 몸이 약한 대원들을 위한 이러한 배려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

크로마하프·만도린관양대는 평화를 끼치는 도구라 되기를 원한다. 이들의 연주에는 화려하지도 않고 장엄하지도 않다. 다만 잔잔한 샘물 같은 맑고 고운 음색이 듣는 이의 마음을 은혜로 축복하게 한다. 크로마하프·만도린관양대의 연주가 변함없는 평화의 도구가 되기를 기원한다. (김/정원희 기자)

여호와와의 평화의 도구



교회 소식

● 알림

1. 장년2부 특강 / 18일(주일) 12:30 교육관 314호에서 있습니다. · 주재: 50대 성도의 시대적 사명 · 강사: 김재철 목사

● 모임

- 1. 정기당회 / 7일(수) 11부예배 후, 당회실
- 2. 장로 화요일(목회) / 6일(화) 새벽기도 후, 교육관 109호
- 3. 주일오후기도회 / 매주일 15:00-16:30, 갈릴리움
- 4. 건축위원회 월례회 / 오는 15:00, 사무국
- 5. 감사위원회 월례회 / 오는 15:30, 선교관 404호
- 6. 남녀전도부 각 교구 연합회상, 부교회 월례회 / 11일(다음 주일) 15:00, 벡다나홀
- 7. 확임전도회 월례회 / 11일(다음 주일) 12:20, 분당 지하110호
- 8. 교정전도회 월례회 / 오는 기도회 모임 후, 갈릴리움
- 9. 실업전도회 월례회 / 8일(목) 새벽기도 후, 실업전도회실
- 10. 경찰전도회 월례회 / 11일(다음 주일) 15:00, 갈릴리움
- 11. 안수집사회 월례회 / 오는 15:30, 교육관 212호
- 12. 권사회 제1지회 월례회 / 7일(수) 1부예배 후, 사랑부실

● 남녀전도회

- 1. 베드로 2 / 17일(토) 14:00, 충현교회 동문 앞(부부동반)
- 2. 베드로 13 / 11일(다음 주일) 12:00, 갈릴리움
- 3. 오 한 6 / 17일(토) 17:00-20:00, 갈릴리움

● 결혼

- 1. 정재호(경가민) 성도, 최태희 권사의 아들, 제17교구와 임종현(안문자 씨의 딸) / 10일(토) 13:00 갈릴리움

● 별세

- 1. 김기락 성도(김숙자 권사 부친, 안성영 안수집사 장인, 제12교구 구인산구역) / 9월 18일 별세, 9월 21일 장례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면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면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면도자
1552	권인나	1	에스더	이종국(17)	1560	한성호	19	청년2부	안현숙(19)	1568	은현준	19	고등부	
1553	남경현	2	청년1부		1561	김미경	19	청년1부	강성오(16)	1569	남택근	19	고등부	
1554	조준연	1	베드로		1562	민지홍	19	청년1부	김자엘(19)	1570	신동욱	19	고등부	
1555	오지훈	8	청년1부		1563	류영란	19	청년1부	김정운(4)	1571	구은숙	19	고등부	
1556	박미선	15	청년2부	이미영(12)	1564	강민철	19	대학부		1572	김현정	19	고등부	
1557	박성애	3	청년2부		1565	김경태	19	대학부		1573	김배연	16	마리아	
1558	이재창	12	청년1부		1566	송재민	19	청년1부						
1559	유신희	19	대학부	강경준(3)	1567	하정욱	19	고등부						

※충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물음들

예배 드리는 가정들
만들어 주신 아버님을 그리며

문 하숙(집사, 16교구)

얼마 전 아버님의 3주기를 지냈
을 때,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성도
를 하고 예배를 드렸다. 아직은 팔남
매가 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모든 기일이 차례에는 하나님
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공식화 되어
있다. '예배 드리는 가정.' 아버님께서
소리 주신 귀하고 고마운 유산이다.

나의 아버님은 1993년 10월, 충현
교회에 출석하시므로 신앙생활을 시
작하였다. 7년 전 발병했던 직장암이
간암으로 전이된 것을 아신 후 예수
쟁이 며느리를 이 가문에서 쫓아내는
것을 마지막 과업으로 삼으셨던 아버
님 때 갖게 애를 드렸다. 186장을 불러다
고에 나오신 것이다. 처음에는 무려
11년을 암으로 투병하신 후에 병고침
의 소망을 가지고 나오신 터라 병이
악화될 경우 다시 돌아서지 않으실까
마음 조려하였다. 그러나 아버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순진한 믿음으로 예
수님께 의지하셨다. 점차 쇠약해지시
어 정양을 위해 자주 집을 떠나게시
때에도 월요일에 떠나셨다가 토요일
에 돌아오셔서 주일을 지키고 다시
내려가시는 일을 반복하시며 믿음을
키워가셨다. 찬양부르기를 좋아하셨
고 예배드리기를 즐겨하셔서 집에 계
실 땐 자주 가정예배를 드리셨다. 열
이 나가신 신장병으로 고통스러워 하
실 때 갖게 애를 드렸다. 186장을 불러다
고에 나오신 것이다. 처음에는 무려
11년을 암으로 투병하신 후에 병고침
의 소망을 가지고 나오신 터라 병이
악화될 경우 다시 돌아서지 않으실까
마음 조려하였다. 그러나 아버님은

러워 마세요, 예수님 사랑하시죠. 예
수님, 하고 불러보세요. '예
수님' 하고 부르셨다. 이 일은 그날
밤 혼자 별실을 지키셨던 어머니께서
전해 주신 말씀이다. 밤중에 아버지
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자주 손을 들
어 흔드셔서 어머니께서 애 자주 팔
을 흔드시나고 어머니가 '천사가 날
데리러 왔다' 하시며 웃으셨다고 하
셨다. 입만시에 마지막 뽀 아버님의
얼굴은 병고의 흔적도 없이 평안하고
고요하셨다.

주님께서는 아버님의 2년이 채 못
되는 신앙생활 속에서 신숙하게 성화
를 이루어 가셨다. 그토록 이생에 집
착이 강하셨고 위해 담당하시던 분을
그토록 겸손하게 하고요 영안을 열어
주셔서 신장병에 대해 알고 평
안 가운데 성도의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게 하신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찬양드립니다.

충현 중보의 창

- 1. 김장인 원로목사와 김장권 위임목사께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권능과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며 모든 교역자들과 당회원들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 2. 충현교회장로회와 장로회를 받은 한복판에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더욱 공로에 힘쓰며 천국 일꾼으로 잘 거라게 하소서.
- 3. 각 세례교회를 맡은 모든 일꾼들이 사랑과 화평으로 충현하여 성령충만한 사랑이 될 수 있도록 하소서.
- 4. 모든 성도들과 기도와 교회에 전도와 선교의 열과 기쁨을 다오르게 하셔서 많은 젊은이들이 전도와 선교의 대열에 열심히 참여케 하고, 충현의 가정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하며 그 복음을 따라 생화복을 받는 가정으로 인도 하소서.
- 5. 새벽기도회와 금요침례와 주일 5부예배가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가 되게 하소서.
- 6. 나이가 어리든 이해에 힘들고 고통스러워 방황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게 하시며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주일을 성수하며 생활 중에서도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몸이 아닌 성도들을 믿음중에 강건케 하시어 치유케 하소서.
- 7. 매주 수요일마다 주일은 지역장, 부지역장, 혼련과 수요일마다 후 진행되는 남성교회장로회를 통해 교구일꾼들이 헌신케 세워져서 각구역이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로 성장하게 하소서.
- 8. 교회 5대 목표가 각 교구와 교회학교로부터 시작하여 전교체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 하소서.
- 9. 계속되는 교구장교들을 통하여 각 교구가 말씀과 기도로 부흥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정한 하나됨을 이루게 하시며, 주간성경공부, 교인성부, 전양대양성부, 선교연구원 등의 강회가 헌신케 진행되어 성도들을 믿음으로 잘 준비시킴을 주도록 동행 하소서.
- 10. 주식을 맞이하여 성도들이 재화와 신앙의 선물을 거머지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 원로목사

김장인

■ 원로목사

김장권

■ 원로목사

김장권

■ 원로목사

김장권

■ 원로목사

김장권

■ 원로목사

김장권

■ 원로목사

김장권

■ 원로목사

김장권

■ 원로목사

김장권

■ 원로목사

김장권

■ 원로목사

김장권

■ 원로목사

김장권

■ 원로목사

김장권

■ 원로목사

김장권

■ 원로목사

김장권

■ 원로목사

김장권

■ 원로목사

김장권

■ 원로목사

김장권

■ 원로목사

김장권

■ 원로목사

김장권

■ 원로목사

김장권

■ 원로목사

김장권

■ 원로목사

김장권

■ 원로목사

김장권

■ 원로목사

김장권

■ 원로목사

김장권